▌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2008.12] : 213~238

마낄라 산업부문에서의여성 인권: 엘살바도르의사례*

이 순 주**
Lee, Soon-Joo

<Abstract>

Los Derechos Humanos de las Mujeres en el Sector Maquiladora
-El Caso de el Salvador-

El Salvadorha sido calificadocomo uno de los países con mejor ambientepara el comercioy la inversiónen AméricaLatina,dado el fortalecimientode las zonas francas.La industriade la maquilaestá centralizadaen los textiles;87% de los trabajadoresde este sector son mujeres. Esta es la taza más alta en América Central.

En el salvadoractual, 15 años despuésdel fin de la guerracivil, aún hace falta la protecciónsistemáticalegal e institucionalde los derechos humanos, y en mayor medid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El crecimientode la industriamaquiladoratiene como presupuesto la producción a bajo costocon el empleode mano de obrabarata.El códigolaboralle ofrecea los empleadoresespaciospara utilizareste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B00018)
** 울산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E-mail:letilee@ulsan.ac.kr

recurso y permitir el abuso de los trabajadores.Los trabajadores salvadoreños son víctimas de la violación de de sus derechos humanos por falta de la protección adecuada del código laboral. Además,las trabajadoras padecen abusos múltiples y complejos que violan los derechos humanos,no sólo por el código laboral sino por las políticas públicas del gobierno o de los organismos sindicales La situación de derechos humanos de las trabajadoras en el sector de la industria maquiladora es semejante en los otros países en América Central. El comercio libre y la industria maquiladora ofreció oportunidades de empleo;sin embargo,se puede afirmar que estos han producido efectos negativos para mejorar el nivel de la vida y proteger o fortalecer los derechos humanos y laborales de las trabajadoras.

[Key Words: Palabras Claves: Zona Franca/ Industria Maquiladora/ Mujer/ Derechos Humanos/ Trabajadores]
[: / / / /]

Ⅰ. 들어가는 말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인권문제는 권위주의 국가의 폭압에서 비롯된 다양한 침해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이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여성들에게 있어 또 다른 인권침해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여성인권침해 환경에서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함께 여성 개인이 속한 계

급, 직업, 인종,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이중적인 인권침해를 겪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해 서구 선진국에서 등장했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급속도로 진행된 개발도상국들의 국제경제체제로의 통합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을 지향하는 시장 메카니즘의 강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각국의 비교우위를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재하고 있다.

세계화의 특성 중 하나는 급격한 국제자본의 이동을 들 수 있는데, 1990년대 동안 연간 자본의 흐름은 상품과 서비스교역보다 30배나 높았고, 산업국가의 자본재는 1970년대 초반 GDP의 5%대에서 1990년대에는 10%대로 증가했다. 무역 또한 증가하여 1970년 세계 GNP의 25%에서 1990년대에는 45%에 달했다(WorldBank1995).이러한 증가에는 개도국에서의 노동집약제조업의 성장 즉, 전기제품과 섬유부문의 성장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멕시코와 중미지역의 마낄라 산업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 분야와 일치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중반부터 실험되기 시작했고, 신자유주의의 개방성은 이러한 변화들을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특히 NAFTA 결성이후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자유무역지대인 마낄라도라를 더욱 더 강화했으며,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국가들도 'ZonaFranca로 지칭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수출을 위한 임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마낄라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국제자본과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점은 이러한 중미국가들의 마낄라 산업이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과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은 노동, 투자, 수출입을 위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자본 및 기업유치경쟁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영향은 선진국의 이민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국제적 이동성이 줄어들었고,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산업국가에서의 이민은 20세기 말 마지막 25년 사이에 천 명당 6.5명에서 4.5명으로 감소되었다(1995).

대신 주요 영향은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이 붕괴되고 노동시장이 '비공식화'된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정규, 전일고용의 개념이 아웃소싱, 계약노동, 시간제, 재택근무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노동의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의 여성부문을 활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성화는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취약한 중미지역 마낄라 산업지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ILRF 2003).

엘살바도르는 1980년부터 1992년 유엔의 중재로 멕시코 차뿔떼뻭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기까지 13년간 극심한 내전을 겪었다. 매우 불평등한 토지분배 시스템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이 내전에서는 로메로 주교의 살해를 비롯한 성직자들에 대한 살해와 많은 민간인들에 대한 억압이 자행되었다. 내전기간 중 엘살바도르인의 100명중 1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는 통계(Stephen, Cosgrove & Ready 2000)가 있을 정도의 극도로 혼란했던 당시 정치, 사회적 혼란은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내전시기에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의 CBI(CarribeanBasin Initiatives)정책에 따라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함께 대미 수출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 정책에 급속도로 성장한 중미지역의 마낄라 산업은 대부분 봉제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산업분야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중미국가들은 마낄라 산업을 경제개발모델로 인식하고 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갔다. 중미지역에서는 이러한 CBI정책과 그에 따른 후속정책 뿐 만 아니라 최근 뿌에블라 파나마 계획

(PlanPueblaPanamá)의 실시에 따라 마낄라 지역의 범위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마낄라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에서의 여성인권의 사회경제적 측면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칠레, 멕시코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OUSTR2005).특히 중미 지역의 마낄라 산업은 그 특성상 여성노동력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따라서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중미지역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화를 통해 수출산업지대를 활성화시켜 온 국가에서 여성인권의 사회경제적 측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1)]

Ⅱ. 엘살바도르의 법· 제도적 여성인권보장

엘살바도르의 여성인권은 1983년 제정된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1994년 가족법, 1972년 노동법, 1997년 형법, 1997년 형사소송법, 1997년 교화법(ley penitential)의 일부 조항들에서 여성권리관련 내용들이 일부 수록되어있다(Naciones Unidas 1999). 아래의 <표 1>, <표 2>,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엘살바도르는 UN, OAS, 그리고 ILO의 주요 인권관련협약에 비준했다. 이러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이 국내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국내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

1) 마낄라산업지대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태조사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단기간이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수할 수 있었던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미리 밝힌다.

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중요 인권관련 국제협약에 비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헌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모든 인권에 대한 평등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법조항이나 부가적인 법조문에서는 차별에 대한 개념정의조차도 없는 현실이다(P.DD.H2008,6). 특히 마낄라 산업에서 여성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련 협약들은 최근에 들어 일부 비준되었다.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에서 여성노동관련 협약들인 제 3호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제89호 야간(부녀자)근로에 관한 협약, 그리고 제 103호인 모성보호에 관한 개정협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표 1> UN협약

협 약 명	비준일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ESR)	1979.11.2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CPR)	1979.11.2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1979.11.2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81.06.0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1994.03.23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1990.04.2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MWC)	2003.02.19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CCPR-OP1)	1995.06.06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X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4.02.25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1.12.1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X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X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83.02.2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83.02.22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93.12.15

자료 : Konrad-Adenauer-StiftungV.(2008),http://www2.ohchr.org

<표 2> OAS 관련협약

협 약 명	비준일자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1978.07.15
고문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관한 미주협약	1994.02.0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부가의정서(산 살바도르 의정서)	1995.03.30
사형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부가의정서	X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에 관한 협약 (벨렘 도 빠라 의정서)	1995.08.23
납치(desaparición forzada de personas)에 관한 미주협약	X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미주협약	2001.11.15.
여성에 대한 시민권 양여에 관한 미주협약	1951.01.17
여성에 대한 정치권 양여에 관한 미주협약	1951.03.06

자료: Konrad-Adenauer-Stiftung e.V.(2008), http://www2.ohchr.org

<표 3> 국제노동기구협약

협 약	비준일자
제3호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X
제103호 모성보호에 관한 개정협약	X
제87호 syndication권리보호와 syndical자유에 관한 ILO협정	2006.08.24
제89호 야간(부녀자)근로에 관한 협약	X
제98호 단체협상과 노동조합권의 원칙적용에 관한 ILO협정	2006.08.24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2000.07.15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ILO협정	1958.05.15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94.07.14
제122호 최소 노동연령에 관한 ILO협정	1994.07.14
제138호 고용정책에 관한 ILO협정	1994.07.14
제156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협약	2000.12.10
제171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2000.12.10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2000.06.15

자료: Escobar 2000: 45; Konrad-Adenauer-Stiftung e.V.(2008), http://www2.ohchr.org

이러한 현실에서 ISDEMU(살바도르 여성발전연구소, Instituto Salvadoreño para el Desarrollo de la Mujer)의 창설은 여성권리증진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OAS의 여성인권관련 협약인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에 관한 협약'[2]가입은 1996년 11월 28일 발효한 '가정폭력에 관한 법'(Ley contra la Violencia Intra-familiar)의 모태가 되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러한 여성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책임지고, 여성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ISDEMU를 설립했다. ISDEMU는 설립 다음 해에 다른 국내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참여로 첫 번째 국가여성정책을 만들어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센순떼뻭(Sensuntepec)에 여성 전문직업 훈련센터의 건립, 훈련센터 내 매년 1152명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탁아소 건립 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그 외 '농촌여성지도자양성 및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3]

그럼에도 ISDEMU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는 다른 정부 부처급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유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역할에서 기인한다. 이베로아메리카 옴부즈만 연맹(Federación Iberoamericana de Ombudsman)에 따르면, ISDEMU는 여성정책대표기구이기는 하지만, 공공정책과 행정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차별적인 정책들에 대해 필요한 제안을 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 각 부문의 정책수립과정과 구상에 젠더관점을 포함시키지

---

2) Convención Interamericana para Prevenir, Sancionar y Erradicar la Violencia contra la Mujer(1994).

3) 이 프로젝트는 농촌여성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촌여성들의 평등한 기회와 참여를 위해 농촌여성지도자의 수를 늘리고, 빈곤, 주변화,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정부기구에서 일하는 농업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http://www.ilo.org)

도 못했고, 각종 국제의정서의 협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Escobar2004,143).

Ⅲ. 엘살바도르 마낄라 산업[4]의 발전과 여성노동력

1. 마낄라 산업의 발전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커피생산과 농업이 중심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농업부문은 상당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농업부문의 수출 감소는 정부의 수출산업부문의 집중정책과 함께 엘살바도르를 중미지역에서 미국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서 가장 산업화되도록 만들었다(Erricson2004).

미국은 1980년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중미지역 국가들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정치,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경제적 빈곤으로 판단했다. 이들 지역에서의 우익정권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1983년 CBI(CaribbeanBasinInitiative)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중미국가들과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1983년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CaribbeanBasinEconomic RecoveryAct, CBERA)과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 10월 중미, 카리브지역무역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CBTPA)이 제정되었고 이 법안의 대상국은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 중 총 24개국[5]이다. 이 법안은 중미

4) 마낄라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계약회사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마낄라 내에서의 생산은 계약회사가 디자인한 수입원자재의 마무리 공정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크다. 최종상품은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판매된다. 마낄라는 대개 관세면제혜택이 있는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해 있다.

지역의 섬유부문 마낄라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중미국가들이 이러한 무역상의 혜택을 입기 위한 조건으로서 미국이 제시한 몇 가지 사항들은 이 지역 마낄라 산업 노동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1)노동자들의 조합결성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2)의무노동 및 강요에 의한 노동금지 3)미성년자 계약 최저연령설정 4)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보건 등에 있어서의 미성년 노동자들에 대한 최악의 조건을 제거할 것 등이다(Fernández-Pacheco 2001, 9).[6]

이러한 미국의 대 중미지역 정책 변화에 따라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지역 국가들은 'Zona Franca'로 지칭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수출을 위한 임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마낄라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마낄라 산업은 멕시코와 미국의 중미지역에 대한 무역자유화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시도를 통해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당사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통상장벽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경쟁조건을 강화할 것이며, 상호 교류확대 및 관계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발전을 지속 가능 하도록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이행, 강화하고 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Eugenia Ochoa 2004).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마낄라

---

5)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ritish Virgin Islands, Costa Ric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Nicaragua, Panam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 http://www.ustr.gov/Trade_Development/Preference_Programs/CBI/Section_Index.html 참조.

6) 미국의 제시한 이러한 조건들은 엘살바도르의 노동법에 반영되었지만, 이러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산업은 저개발국가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저비용을 달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열악한 근무조건, 저임금 등의 문제만 심화시키게 된다고 본다[7].

이들 마낄라 산업부문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투자비중이 매우 높아 45%내외에 이른다.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지역의 마낄라 산업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마낄라 산업은 거의 대부분 섬유, 의류 및 신발류에 치중되어 있으며 생산된 상품의 최종경로는 미국이다(Fernández-Pacheco 2001,10). 마낄라 산업이 엘살바도르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서 1999년 사이 평균 20.1%에 달했다.

2. 마낄라 산업에서의 여성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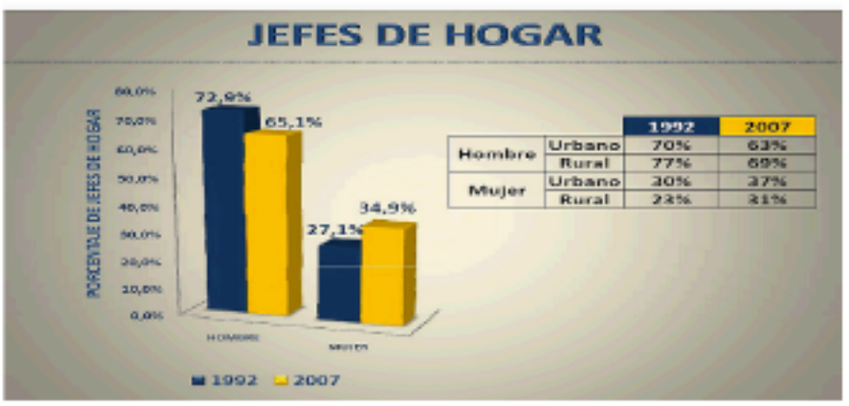
경제 개방화와 마낄라 산업의 성장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남성이나 여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선 무역자유화를 동반한 구조조정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제한이 여성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과,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동안 마낄라 산업과 비공식부문은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지역여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흡수했으며, 이지역의 1인당 소득은 매년 2%씩 증가했다(FernándezPacheco2001,8). 중미지역 마낄라 산업의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엘살바도르의 마낄라 산업분야는 섬유 및 봉제 등 제조업

7) 이러한 상황과 함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본다.

이 주를 이룬다. 전체 노동자의 1/5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 산업부문 전체 노동자의 87%가 여성이다. 이들 여성 중 88%이상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PDH 1998)마낄라 산업에서의 고용은 여성노동자와 그 여성을 가장으로 하는 가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가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여성가장과 그 가족들의 삶은 마낄라 산업의 여성에 대한 처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1> 성별 가장비율의 변화



자료: http://www.mtps.gob.sv./descarga/censos_2007.pdf

<표 4> 중미국가들의 마낄라 산업의 현황

국가명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마낄라기업수	320	215	213	19	469	188
섬유부문의비중	80%	95%	80%	89%	62.5%	70%
도시지역 집중율	70%	80%	75%	100%	15.5%	88%
노동자수	80,000	110,923	69,000	16,000	165,571	49,816
여성노동자비율	80%	71.4%	87%	80%	60%	65%

자료: Quinteros(2007)p.3 에서 재인용

엘살바도르의 인구는 690만정도(2007년 기준)이며 여성이 전체인구의 50.9%를 차지한다. 엘살바도르의 마낄라에서의 여성노동권리에 대한 ORMUSA[8]의 조사에 따르면(2002), 도시지역에서 마낄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88%에 이른다. 이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미 국가들 중 마낄라 산업의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평균나이는 26세이며, 이중 가장 많은 연령은 24세다. 59%가 독신이며 24%가 동거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17%는 기혼자라고 응답했다. 49%는 1-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22%는 3-4명, 10%는 4-6명 이었고, 자신의 소득전체가 가구지출로 사용된다는 여성이 60%였고, 절반 이하의 임금을 지원한다고 말한 18%정도만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었다. 59%의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중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상당수가 자녀를 둔 가장이다. 82%의 여성들만이 기초교육을 받았고, 그 중 60%는 6학년까지, 나머지 22%의 여성들은 7년에서 9년가량의 교육을 받았다. 나머지 18%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

1990년대 동안 마낄라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해 왔다. CBI혜택국가의 확대로 투자의 확대에 따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져왔다(AlvarengaJule2001,9). 그러나 최근 중국으로의 외국기업이전, WTO에서의 점진적인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협정 등은 엘살바도르 마낄라 부문에서의 여성고용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해 오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해 온 CBI정책이 이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더욱 더 많이 만들어 낼 것

8) ORMUSA(Organizationof SalvadoranWomen for Peace)는 마낄라지역(자유무역지대) 공장들에서 노동조건들을 비롯한 많은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폭력희생자들에 대한 정신과적 지원, 자활그룹 구성 뿐만 아니라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노동시장은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오히려 적어지고 대신 여성들이 생존을 위한 소기업의 환경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휴가, 특별수당, 사회보장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왔던 협정가입국에서의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들의 긍정적인 동질화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국가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증대되었다.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미국 시장에서의 제한 약화를 이유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기 위해 엘살바도르 자유무역지대에서 철수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수를 절반이상으로 감축시키기도 했다(Eugenia Ochoa 2004,13). 그 결과 6천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미쳤다(Vaquerano, 2004). 또한 공장을 이전해 가거나 엘살바도르에서 철수하는 경우 노동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Ⅳ. 마낄라 산업부문에서의 여성인권

멕시코 및 중미지역 의류산업분야에서의 여성인권침해사례들, 특히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남용의 사례는 지금도 매우 심각하다. 각 국가의 노동법에서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모성권 등의 보호가 명문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멕시코와 니카라과의 마낄라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는 매우 다양하다(Barns and Kozar 2008). 니카라과의 경우 마낄라 부문 노동자들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대부분 의류산업분야다. 이 부문은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기업들은 제한된 기술과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을 주 노동자로 고용한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착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의류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인권남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이다. 1991년 니카라과 산업부문의 민영화이후 자유무역지대에 섬유공장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지대는 수도인 마나과에서 시작되었고, 태평양 연안과 북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섬유회사들은 주로 젊은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은 상당히 위험한 조건에서 노동에 종사했다. 노동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과 함께, 그들은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보건상의 문제들을 겪었다. 이는 높은 임신율, HIV감염위험, 자궁경부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9](Arguello 2001). 엘살바도르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마낄라 산업 번창의 엘살바도르 여성에 대한 영향은 노동기회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기회에 대한 접근이 노동권 및 인권침해의 대상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Hernandez de Menjivar). 여성노동자들이 접하는 인권침해 상황은 남성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부재로 인해 여성들은 더 많은 착취와 학대, 그리고 노동권 및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열거해 보면, 과다노동 착취, 열악한 의료 및 사회보장, 열악한 주거환경, 성폭력 및 성희롱, 가정폭력, 매매춘, 여성살해(femicidio)의 증대, 차별적인 정부의 정책, 고용에서의 차별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는 한 가지 유형이 독립적으로 나타

9) 1998년 7월, UN인구기금과 사회연구 및 홍보센터(Centre for Social Studies and Promotion)가 자유무역지대에서 성 및 재생산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1. 노동차별과인권침해

노동분야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과 인권침해는 고용에서의 차별, 노동착취, 의료 및 사회보장에서의 소외, 고용에서의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에 상당한 잇점이 있는 마낄라 산업부문에서는 국제경기와 노동시장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상품들과의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CAFTA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마낄라 산업부문은 침체국면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침체는 꾸준한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었으며, 2008년 10월과 11월 사이 엘살바도르에서는 18개 마낄라 산업체에서 약 4천여 명이 해고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수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Hernandez2008).

엘살바도르 노동법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기업주들은 여성들에게 12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하고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류 한점 당 평균 27센트를 받음으로써 여성노동력은 착취당한다. 엘살바도르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5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마낄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데, 그중 35%만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회사가 사회보장에 대한 임금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65%는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가입이 된 노동자가 질병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게 산전, 산후 검진을 할 수 없다. 회사는 출산 전 몇 시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산후조리를 위한 3개월 휴직은 없다. 실직의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을 숨기고 많은 경우에 있어 힘든 노동조건으로 인

해 강요된 낙태를 행하기도 한다. 키, 몸무게, 나이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에 근거한 차별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직, 관리직, 생산 공정 팀장 등은 여성들의 지적능력 부족을 이유로 남성에게 맡겨진다. 마낄라 지역에서 고용주나 관리자들에 의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실직 등의 위협과 함께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흔하다.

고용조건으로서 여성들에 대한 임신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멕시코에서도 문제된 바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산업단지내의 마낄라 산업체들에서도 일부 고용주들은 여성노동희망자들에게 임신진단 결과서를 제출토록 요구해 왔고, 임신인 경우 해고된 노동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State 2005). 법적으로는 남성과 여성모두에게 가족과 재산 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다르다. 실제로 공무원이 성별에 따른 권리를 부정한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경우 노동관계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면 6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알리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US Departmentof State 2005).

2. 가정폭력과여성살해(femicidio)

가정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이며, ISDEMU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2%가 상승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93.23%가 여성이라고 보고되었다. ISDEMU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82%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에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엘살바도르는 여성에 대한 지원 정부기구로서 Instituto Salvadoreño para el Desarrollo de la Mujer(Isdemu)를 1996년 2월 29일 설립했다. 2002

년부터 여성에 대한 정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라파스(La Paz), 찰라떼낭고(Chalatenango), 라우니온(la Unión), 까바냐스(Cabañas)등 4개 지역에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현재는 6개를 가지고 있다. 이 사무국들에서는 주로 가정폭력피해자, 피학대어린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실시하고 있다(El diario de hoy 2006/03/31).

그럼에도 2004년 UN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가 심도 깊게 이루어 진 적이 없으며, 엘살바도르 내 시민단체들도 가정폭력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삶과 존엄을 위한 여성연맹(Las Dignas: Asociación de Mujeres por la Dignidad y la Vida)은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들의 보호요청이 묵살되거나 거부되는 경향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태가 가중되는 이유로는 사회적 압력, 보복의 두려움, 공개와 치욕에 대한 두려움, 행정기관에 의한 차별적 대응, 법체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지난 2004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신고 된 가정폭력은 1,054건인 것으로 여성사무국(Oficina de Asuntos de la Mujer)에 보고되었다. 이들 중 거의 94%의 희생자들이 여성이었고, 이중 20%가 법정으로 보내졌다. 엘살바도르는 내전이후에도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여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단절하고자 하거나 남성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리고 부당함을 호소할 때 남성에 의한 가정폭력이 용인되고 있으며 여성들을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Hufstader 2005).

여성살해는 멕시코의 후아레스시가 매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후아레스시는 마낄라 지대로 편입되면서 여성살해가 매우 심각해 진 사례다. 이러한 여성살해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대가 활성화 되면

서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전체 살해사건 중 여성피해자 비중은 9%정도(2004)지만,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사회적 불안은 상당하다. 여성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25세이며 실제 피해자 중 이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은 25.5%정도다. 이는 전체 연령 여성의 평균 피살률보다 약 3.4배가 높다(Masferrer2004).심각성이 가장 심한 지역은 자유무역지대인 라 리베르따드(La Libertad)로, 2006년 한 해 동안 82건의 여성 살해가 있었고, 산살바도르 산따안나, 산미겔, 아포파 등 여성 살해 범죄가 가장 많은 지역들[10]은 모두 도시이며 마낄라 산업지대에 속한다.

3. 노동조합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노조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반 조합적인 해고 및 정직에 대한 안전장치가 매우 미약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현행 노동법상 고용주의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의 제공이 아니라 급료의 지불이다. 현재 노조지도자들이 선출되면 사법부의 승인이 없는 한 임기만료 후 1년 이내에 그들을 해고하거나 정직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기간 동안 급료를 지불한다면 이들을 작업장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이는 노조지도자들을 작업장과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노조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기 위해 고용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KOILAF 2003,29-30).이러한 노조활동에의 낮은 참여는 이러한 엘살바도르 노동법의 허점들에서 기인한다. 엘살바도르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은 매우 낮은

10) 산살바도르 36건, 아포파 24건, 산따아나 23건, 산미겔 22건 ORMUSA,(2007).

편이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지도부에 속하는 여성들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노조는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있다. 2002년 엘살바도르 사회보장노동부(MinisterioTrabajo PrevisiónSocial)의 통계에 따르면, 138,447명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중 11,740명이 여성으로 겨우 9%정도에 이른다. 노조에 가입한 여성들은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공무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원적으로 노조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더 낮은 여성노동자들의 노조참여율은 노조 활동도 남성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낳고 있다.

4. 매춘/아동노동

마낄라 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 매매춘의 피해는 주로 여성과 남녀 아동들이다. 엘살바도르는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공급원, 중간경로, 소비처이기도 하며, 강제노동의 희생자가 많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러한 인신매매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살바도르의 아동들과 여성들은 농촌과 동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매춘을 위해 팔려온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인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의 국가들에서도 매춘을 위해 여성들과 아동들이 수입되기도 한다(P.DD.H 2008,13). 엘살바도르에서는 매춘을 권유하거나 매춘부에 대한 댓가의 제공은 불법이지만, 매매춘 그 자체로만은 불법이 아니다. 이러한 매매춘은 성인여성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왔다. 도시지역에서 수천 명의 여아들이 가사노동을 위해 고용되기는 하지만, 성희롱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루 16시간의 노동과 1개월 동안 1, 2일정도의 휴일을 가지면서, 60%의 아동노동자는 육체적 성학대나 정신적 학대를 고용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학교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는 노동시간과 학교시간이 겹치고, 학교교육비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다(Human Rights Watch 2004).

5. 제도적 차별

엘살바도르에서의 여성들은 최근 30여 년간의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참여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향상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많은 여성들이 임금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여성에게 주어진 다양한 임무들로 인해 여성들은 공동체, 예술 등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등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활발하게 공동체 및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이러한 엘살바도르 여성들의 불리한 상황들을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ARENA정부는 여성들을 한 가족의 어머니로서 가사노동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독신모 지원'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독신여성의 수입원이 단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구주들에게 주택, 보건, 교육 등 사회적 기초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여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11]

또한 은행의 신용공여 시스템은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남성보다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양질의 주택을 구입하기

11) "La desigualdad de género: grave injusticia del sistema social" Estudios Centroamericanos, Año LX, Julio-Agosto, 2005, pp.579-580.

위한 은행의 대출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과밀상태에서 살거나 변두리에 위치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주택에 살 수밖에 없다. 가사를 책임지는 여성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은 여성의 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킨다.

Ⅴ. 나오는 말

이 글은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중미지역 마낄라산업 부문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인권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엘살바도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대도 활성화되었다. 마낄라 산업은 다른 중미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섬유 및 봉제분야에 집중되었고, 노동자의 87%이상이 여성에게 편중됨으로써 중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전이 종료된 지 약 15년 정도가 지난 현재,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전히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며, 여성인권 보호의 측면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 엘살바도르의 법적, 제도적 환경은 외형적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일부 UN, OAS 그리고 국제노동기구협약들에 가입과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최근 여성권리 및 인권과 관련한 각 국가 내에서의 변화들이 국제적인 협약비준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또한 이미 가입한 협약들도 실제로는 수출산업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느슨한 형태의 노동법을 적용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국제협약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마낄라 산업의 성장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비용생산을 전제로 한다. 저비용 생산이 전제로 된 이러한 산업 성장은 다른 산업분야보

다도 더욱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요구하고 임금제한과 낮은 복지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일반적인 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보다 더 심각하도록 만든다. 엘살바도르의 노동법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남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은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법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경험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약한 노동법 뿐 만 아니라, 정부정책과 노조 내에서도 차별을 겪음으로써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마낄라 산업 부문의 여성인권은 중미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으로, 마낄라 산업이 새로운 고용기회를 중미 노동자들에게 창출했지만, 노동조건과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강화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기업 내에서의 여성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마낄라 산업이 확산되어 있는 지역 전체 사회 내에서 부차적인 여성들에 대한인권침해– 가정폭력, 여성살해, 매춘, 아동노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도 간과될 수 없다.

참고문헌

Arguello L; Alvarado A; Marsal G; Cuadra R(2001),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or textile industry workers in Nicaragua," Sexual Health Exchange, No.4, pp.12–3.

Coupal, Françoise P.(1995), "Participatory Project Design: Its Implications for Evaluation. A Case Study from El Salvador,"

http://www.mosaic-net-intl.ca/elsalvador.html.

Editores(2005), "La desigualdad de género: grave injusticia del sistema social", Estudios Centroamericanos, Año LX, Julio-Agosto, 2005, pp.579-580.

Eriksson, Jenny(2004), "Restricted Possibilities of Uninization Within Maquila Indestry in El Salvador," http://theses.lub.lu.se/archive/sob//soch/ soch04027/SOCH04027.pdf.

Escoba, Guillermo(2004), Derechos de la Mujer, II Informe sobre Derechos Humanos, Madrid: Trama Editorial.

Eugenia Ochoa, María(2004), "La Liberalizacion del Comercio, Los Tratado de Libre Comercio y la Situación y Condicion Laboral de las Mujeres en El Salvador: Una Aproximación al Tema," Bernarda: La Revista de Maquila, No.5, Sep-Oct., ORMUSA.

FAO, "La mujer en la agricultura, medio ambiente y la producción rural: El Salvador," http://www.rlc.fao.org/mujer/situacion/pdf/els.pdf.

Fernandez-Pacheco, Janina(eds.)(2001), Enhebrando el hilo: mujeres trabajadoras de la maquila en América Central: Contexto económico y social del empleo en la maquila textil y de vestuario, San José de Costa Rica: OIT.

Hernández de Menjivar, Rosa Virginia, "Discriminación, Explotación y Empleo Precario en El Salvador: El Caso de las Maquilas," http://www.unige.ch/iued/new/information/publications/pdf/yp_silcence_pudique/15_Eco_Maquilas.pdf.

Hernández, Guadalupe(2008/11/20), "Maquila pierde 4,000 empleos,"

http://www.elsalvador.com.

Hufstader, Chris(2005), "Cambiando el legado de violencia en El Salvador," http://www.oxfam.org/es/programs/development/camexca/salvador.htm.

Human Rights Watch(2004), "El Salvador: Girls Working as Domestics Face Abuses," Human Rights Watch, 15 January.

ILRF(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2003), "Statement Regarding the Central Amreican Free Trade Agreement(CAFTA)" www.quixote.org/uest/ advocacy/fair-trade-cafta-labir-ilrf-nov-2003.pdf.

KOILAF(한국국제노동협력원)(2003), 엘살바도르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Konrad-Adenauer-Stifting e.V.(ed.)(2007),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sobre Derechos Humanos vigentes en Centro América y República Dominicana," http://www.kas.de.

Masferrer, Roberto(2005) "El Salvador, Uno de los países más violentos de Centro America," Bernarda: La Revista de Maquila, No.2, Marzo-Abril, pp.19-21.

Naciones Unidas, Oficina del Alto Comisionado para los Derechos Humanos(2000), Norma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de Protección Contra La Discriminación de la Mujeres

Nielsen, Jesper(2007), "Export Processing Zones or Free Zones - the experience seen from a trade union point of view", http://www. labour-inspection.org/EPZ. experiences.tradeunionpoint.htm.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www2.ohchr.org.

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05), Sixth Report to Congress on the Operation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2005/12/31.

OIT(1996), La Situación Sociolaboral en las Zona Francas y Empresas Maquiladoras del Istmo Centroamericano y República Dominicana, San José de Costa Rica: OIT.

ORMUSA(2007), "El Derecho de las Mujeres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Primer Seminario regional sobre Femicidio. http://observatoriolaboral.ormusa.org/foros/2007_Seminario_Regional_Feminicidios.pdf.

Procuraduri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1998), Los Derechos Humanos y la Maquila en el Salvador, San Salvador: PDDH.

Quinteros, Carolina(2007), "Mujer maquila y organizacion sindical en Centroamerica", http://www.aseprola.org/media_files/download/mujer_maquila_y_organizacion_sindical_en_centroamerica.pdf.

Stephen, Lynn & Serena congrove, Kelley Ready(2000), Aftermath: Women's Organization in Postconflict El Salvador, Washington: Center for Development Information and Evaluation,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Department of State(2004), "EL Salvador: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6/17_27.htm.

U.S. Department of State(2005), EL Salvador: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6/78727.htm.
Vaquerano, Glenda (2004). "La Maquila baja sus exportaciones ocasionando pérdida de empleo en el sector. Las más afectadas...las mujeres," Bernarda: La Revista de Maquila, No.4, Julio-Agosto.
El Diario de Hoy, 2006/03/31.

▌논문투고일자 2008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20일